

이덕일의 '역사의 창'



병사의 목숨 값

제임스 하우스만(1918-1996)이라는 미국인이 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미 육군대위로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을 주도했는데, 광복군 출신보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우대해 국군이 친일세력의 피난처로 변질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경무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대통령 이승만과도 가깝게 지냈다. 1952년 12월 23일 미군의 월튼 워커 장군은 지프차를 타고 가다 한국 육군 제6사단 2연대 수송부정비대의 민간인 수리공 박경래가 운전하던 닛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승만은 한국군 소속의 운전수를 사형시키려 했는데 하우스만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가 있다.

영흥으로 돌아갔다가 체포되어 사형 당할 뻔 했으나 탈출해 월남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1947년 소위로 임관한 김창룡은 정보국 정보장교로 과거 항일세력을 색출하던 특기를 발휘해 좌익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좌익으로 몰아 제거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1949년 1월 김창룡을 방첩부대장으로 임명했고 그 직후 안두희가 백범을 암살했다. 김창룡은 6·25전쟁 때에는 군-경찰-경찰합동수사본부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 숙청했다. '동해안 1군단 반란사건', '국가원수 암살미수 사건' 등을 일으켜 이승만에 비판적인 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고문과 용공조작으로 악명 높던 김창룡은 1956년 1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저격당해 사망했다.

이승만은 적십자병원을 찾아 조문한 후 육군 중장으로 추서하고 즉시 범인색출을 지시했다. 1967년 2월 3일 김창룡의 장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승만은 '김중장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고 애도했고, 국사학계(?)의 태두 이병도는 "간첩 오를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5천명"이라고 칭송했다. 특무부대의 수사 끝에 허태영 대령 등이 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이승만 정권은 허태영은 물론 그의 운전수 이우희까지 총살시켰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치고 사형당했다(동아일보 1957년 9월 26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갔던 신초식과 송용고도 사형시켰다. 백범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김창룡 저격사건은 주범과 공범은 물론 운전수의 목숨까지 빼앗겼다.

중공 춘추시대 위(衛)나라 장수 오기(吳起)는 졸병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병사들의 종기를 직접 빨아서 낮게 했다. 그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하자 "장군이 직접 종기를 빨아주었는데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 어머니는 "장년에 오기가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어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다면서 '지금 또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 아이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울었다. 이 때문에 '종기를 빨아주는 어멈'이란 뜻의 '연리지인'이라는 4자 성어가 생겼다. 오기는 방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병사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처신으로 군사들의 마음을 얻었다. 오기는 자신이 섬기던 위문후가 죽자 아들 무후를 섬겼는데, 하루는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수가 아름답다고 감탄하던 무후에게 "군주께서 덕을 쌓지 않는다면 배 안의 사람들도 모두 적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고, 무후는 "좋은 말이오"라고 대답했다. 수해 복구 나갔다가 죽은 한 병사의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으로 여기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돌아설 것이라는 예견은 그리 어렵지 않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정쟁으로 끝난 국회...22대에선 민생 챙기길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만 일삼다 빈손으로 문을 닫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외에는 달리 평가할 말이 없을 정도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채상병 특검법' 제의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모두 내팽개쳤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맞서 행한 거부권만 10번이나 될 정도로 최악의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

여야의 대치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법안은 수도룩하다. 육아 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핵연료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특별법', 인공지능 사업 육성에 필

요한 'AI 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종료로 이런 민생법안들은 일괄 폐기됐다. 다시 추진하려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국 변화에 따라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 정쟁으로 끝난 21대 국회에 대한 책임은 거대 야당에도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을 겨냥한 특검법 저지에만 몰두해 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여당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의 직전까지 갔던 국민연공 개혁안을 거부한 것도 정부와 여당이다.

오늘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도 21대처럼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민들은 최악의 21대 국회를 기억하면서 22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2대 국회는 제발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든 아든 정쟁에 몰두해 민생법안을 소홀히 하는 정당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역 일자리에 활로를

자치단체들이 취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 일자리에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은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올해 목표한 15~64세 고용률(70.0%)을 전년도 달성한 고용률(71.8%)보다 낮게 전망했다. 15~64세 취업자 수(99만 명)도 전년도 취업자 실적(101만 9000명)보다 2.8%나 낮춰 잡았다. 상용근로자(통상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한 임금 근로자) 목표도 39만 5000명으로 전년도 실적(41만 2000명)보다 4.1%나 낮춰 전망하는가 하면 올해 추진할 일자리 사업 역시 223개로 전년도(241개)보다 줄었다.

고용 전망을 어렵게 본 것인데, 여기에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꾸준히 줄고 청년(20~39세)·중년(40~49세)층 인구

유출도 잇따르는 데다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은 전남의 상당수 자치단체가 일자리 시장을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30~40대 취업자 수가 33만 9000명(2021년)→33만 1000명(2022년)→32만 4000명(2023년)으로 감소했는데, 전남의 주력이었던 석유화학·철강·조선 등의 경우 성장현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해 고용을 늘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 이유다.

일자리시장이 얼얼불은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일자리에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몇년 전 대만 영화 '안녕, 용문객잔'(2003)을 여든 살 넘는 광주극장에서 관람하는 기본은 모했다. 세계적 명성의 차이밍량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는 폐관을 하루 앞둔 영화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관 축이 마지막 작품으로 상영한 영화가 바로 호금전의 '용문객잔'이다. 영화 속 배경이 되는, 낡은 대로 낡은 1000석 규모의 북화대극장은 대만에 현존하는 극장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주류인 시대,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흑시나 문을 닫지 않을까 노심

NHK 엔지니어링 음향디자이너가 직접 음향을 설계하고 최고급 사양의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들여와 화제가 됐다. 아트홀은 클래식 연주자와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공간이었다. 백전 노장 백건우의 쇼팽 '에투드'와 17세 소년 임운찬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초절기교'를 들었던 곳이었다. 다양한 장르의 지역 연주자들이 이곳에서 리사이틀 등을 통해 애호가들을 만나왔다. 무엇보다 지역의 어린 연주자들이 응원해온 금호영재콘서트의 존재가 빛을 발한다. 지금까지 180명의 초·중·고, 대학 생들이 독주회를 열고 예 술가의 꿈을 키웠다.

안녕, 금호아트홀

광주신세계는 매일 공간을 명품관 등이 들어서는 '광주신세계 아트엔컬처 파크'로 꾸민다고 발표했다. 백화점 1층 신세계 갤러리가 지역 예술발전엔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신세계의 이름에 걸맞은 최고 시설의 클래식 전용홀을 마련해 예술의 향기를 계속 전해주면 좋겠다. 금호아트홀 무대에 가장 많이 선 음악협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아두 콘서트를 통해 작별 인사를 건넬때 어떤가. '굿바이, 금호아트홀'이라고.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기고

사회적 합의 파기로 기로에 선 GGM



양진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비즈니스(GGM)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탈피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설계 당시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오던 제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생산성은 악화하고, 기업은 줄어들어 지역의 청년인구는 지속 유출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광주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시민사회·노동계·현대차·광주시가 '노사민정 대 타협'의 산물로 탄생시킨 것이 광주형 일자리이며 그 결과물이 GGM이다.

GGM이 설립되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 노조의 임금협약 유예기간을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로 한다는 협약은 노동계의 반발,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자 측이 반대하는 등 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마음을 움직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광주를 떠나게 놔두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나고 자란 고향에서 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솔한 어려움 속에 탄생한 GGM이 법인 설립 5년을 맞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하다. 얼마 전 GGM 노동조합이 연이어 결성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업별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노조 결성과 기업은 헌법상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탄생한 GGM은 '투자협정서' '노사상생발전협약서' '부속합의서' 등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GGM 노·사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다. '협정서'를 위반하게 되면 GGM의 지속가능성 또한 심각한 위협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협정서 상의 '신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정한 것은 GGM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산 안정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투자자들에게는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대신 상생협의회를 통해 GGM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길을 택했다'는 의미로, 노동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생산 안정화 기간 동안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받는 길을 가야겠다'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합의가 그토록 어려웠던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거셌던 것이다. 다행히 각각각층의 노력 속에서 대화와 양보로 천신만고 끝에 협약내용이 합의되고 GGM이 탄생했다.

아쉽게도 인내의 시간에 노조 설립이 이루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 GGM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속에 합의된 협정서가 파기된다면 GGM에 위탁생산을 의뢰

할 대의적 명분이 사라질 것이고 생산물량이 없는 공장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GGM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합계 실현에 GGM 노조 설립 원인이란 주장과 함께, GGM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일의 강도가 커 퇴사율이 높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GGM의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GGM 측에 따르면 1년 차 근로자도 주거지원비(326만4000원)와 성과격려금(390만 원)을 포함해 3720만 원을 받고 있다. 2023년 GGM의 퇴사율은 7.9%로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13.8%) 및 대기업 퇴사율(8.6%)보다 낮다. 사회적 임금을 포함한 임금 수준은 기아차·현대차 등 대기업에는 못 미치지만 기아 1차 협력사보다 높고, 퇴사율은 기아 1차 협력사의 57% 수준이다.

무엇보다 GGM은 올 하반기 '캐스퍼 EV' 생산을 통해 54개국 수출로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의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캐스퍼 이외 다른 2-3종의 생산 차종을 확보해 20만대의 생산공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대전환 시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GGM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역사회와 노동계,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에게 부탁 드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왜 시작했는지, 광주형 일자리 GGM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 돌아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잘 마련해가길 바란다.

의료칼럼

상심(傷心) 증후군



김종철 한국건강관리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분에 넘쳐 지나친 불행이나 행복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심 증후군'은 타코츠보(たこつぼ) 증후군 또는 타코츠보 심근증(心筋症)·심근병증(心筋病), 스트레시성 혹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심첨부(心尖部) 확대 증후군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타코츠보 심근증은 일본에서 처음 발견돼 명명됐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특징적인 소견, 즉 좌심실이 수축돼 좌심실 위쪽이 부풀어 오른 좌심실 심첨부 확대 소견이 마치 문어(文魚) 잡이 항아리인 타코츠보(たこつぼ)와 비슷해 붙은 이름이다. 상심 증후군은 일본 등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됐으나, 2005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연구 결과가 발표돼야 비로소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타코츠보 심근증은 여성, 특히 50세 이후와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인 마비에 의한 무(無)운동(akinesia)을 비롯한 좌심실 심첨부 벽의 비정상 소견을 보이는 심근병증으로, 일반적으로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병증으로도 일컫는다. 증상 및 검사 소견이 급성 심근 경색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로 관상동맥에 뚜렷한 이상 병변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양자의 감별이 어렵다. 타코츠보 증후군으로 인한 병원내 사망률은 10% 미만이고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 경색증 등과의 정확한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타코츠보 증후군 환자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 호흡곤란, 메스꺼움·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인 흉통은 흉부 외상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타코츠보 증후군 진단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흉부 외상 환자에서 급성 좌심실 기능 장애가 나타났을 때 타코츠보 증후군은 감별 진단에 포함돼야 한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심근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염, 천식 급성 심근경색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불안정형 협심증, 협심증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타코츠보 심근증의 치료는 수액을 주입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부분 4주 이내에 회복할 정도로 임상 경과가 비교적 양호하다. 하지만 쇼크에 이를 정도로 증세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해 심근 및 좌심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심장 수축을 막는 약물을 투약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는 않았다. 원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라면 상담 치료를 통해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급성 심근경색과 유사한 일과성 좌심실 기능장애가 나타나지만, 이외는 달리 타코츠보 증후군 환자의 약 95%가 4~8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하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 외에 특정한 치료 지침은 없다. 초기 발병 이후 4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11%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에 노출돼 걱정, 상심하는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잘 위로 격려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감전 의사들의 사명일 것이다.

사람은 괴롭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반대로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해도, 마음과 몸을 상할 수 있다. 불행도 행복도 너무 과하거나 넘치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상심(傷心) 증후군' 혹은 상심(喪失) 심장 증후